

국별리포트

몽골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9. 12. 2.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1
V. 종합의견	14

몽 골

I. 일반개황

면 적	1,567천 km ²	G D P	53억 달러(2008년)
인 구	2.64백만 명(2008년)	1 인 당 GDP	1,764달러(2008년)
정 치 체 제	민주공화제	통 화 단 위	Tugrik(Tug)
대 외 정 책	친서방 실리외교	환 율(달러당)	1,165.74(2008년)

- 몽골은 북쪽으로는 러시아, 남쪽으로는 중국과 접경하고 있는 아시아 내륙 국가로, 몽골족(94.9%)과 카자흐족(5%)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종교는 라마교임
- 1921년 중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1924년 공산정권을 수립, 1당 체제를 유지하다가 1989년 정치개혁을 통해 민주공화제로 변화되었으며, 1992년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였음
- 전 국토의 40%가 사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금, 석탄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편임. 농업, 광업에 의해 경제성장이 크게 좌우되는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선진국들의 대외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지표

단위: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f
경제성장률	7.3	8.6	10.2	8.9	0.5
재정수지/GDP	2.6	3.3	2.8	-5.0	-6.5
소비자물가상승률	9.6	5.9	14.1	23.2	8.5

자료: IFS, IMF, World Bank

□ 주요 생산품인 캐시미어, 광물 가격 하락으로 2009년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크게 둔화된 0.5% 기록 예상

- 몽골은 2004년부터 양호한 기후 지속에 따른 가축 사육두수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광물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시작, 2005~07년 연평균 8.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등 높은 성장세 지속
 - 2008년에는 상반기 세계적인 경기호황과 더불어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경제성장, 동, 금 등 주요 수출품의 가격 상승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나, 4분기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급락으로 성장률이 둔화되어 2008년 경제성장률은 전년보다 낮은 8.9%를 기록
 - 2009년에는 캐시미어 등 가축 관련 제품 가격 하락으로 농목축업이 위축되고, 금을 제외한 주요 광물 가격 급락과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원자재 수요 감소로 광업이 큰 타격을 받았음. 게다가, 임금 하락 등으로 인한 건설, 도소매업 등의 부진에 따라 0.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몽골의 주요 수출품인 동 가격 변화(2008년 고점 대비 2009년 10월)
 · 동: 8,414.04달러/톤('08. 7월) → 6,287.98달러/톤('09. 10월)

□ 인플레이션 하락세 지속

- 수입품 가격 상승, 정부의 확대재정정책, 소비 증가로 2008년 8월 물가 상승률이 34.2%에 달하였으나, 9월부터 석유 및 식품의 국제가격이 하락하여 물가상승세가 완화되기 시작
- 2009년에는 국내 경기 침체에 따른 재고 증가와 국제 상품가격 하락으로 8월, 9월에 각각 -0.9%, -1.9%의 물가상승률을 보이는 등 최근 물가 하락세가 지속

□ 광업 부문 침체에 따른 정부 수입의 급격한 감소로 재정적자 심화

- 몽골은 광업 부문 호조에 따른 법인세와 초과이윤세(Windfall Profits Tax) 수입 증가 등으로 2008년 정부 재정 수입이 전년대비 29% 증가
- 그러나, 공공기관 임금 상승, 실업문제 해결 등을 위한 사회복지 비용 증가 등으로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

* 재정수입 구성 비율(2009년 8월)¹⁾: 부가세 18.2%, 사회보장보험료 13.7%, 법인세 10.3%, 특별소비세 9.1%, 초과이윤세 5.5%, 로얄티 4.2% 등

* 재정지출 구성 비율(2009년 8월)²⁾: 공무원 임금 25.6%, 사회보장펀드(social security fund) 16.7%, 상품과 서비스 구매 15.7%, 국내 투자 12.2% 등

- 2009년에는 광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법인세 및 초과이윤세 수입이 큰 폭 감소(법인세 및 초과이윤세 각각 38%, 80% 감소)됨에 따라 재정수입이 급격히 감소. 반면, 사회보장비 등의 지출 증대로 재정적자 심화

□ 경기 침체에 따른 실업률 증가

- 몽골 실업률은 2008년 말 2.8%에서 2009년 8월 3.7%로 상승. 한편, 세계은행은 몽골의 실질적인 실업률을 21~26% 수준으로 추정

1) World Bank

2) World Bank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취약한 경제구조로 국제 원자재 가격 등 외부요인에 민감

- 농업과 광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8.8%와 28.2%(2008년)로
 흑한 등 자연재해와 국제 원자재 가격 등 외부 요인의 변동에 의하여
 성장이 좌우되는 취약한 경제구조
 - 열악한 기후여건, 소규모 경작, 경작지 부족으로 농업발전에 한계가 있음.
 곡물 수요의 1/3 정도만 국내생산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수입 및 대외
 원조에 의존하고 있음.
- 동, 금 등 광물자원에 편중된 수출구조로 국제 원자재가격 등락에 따라
 경제성장이 좌우
 - 동, 금, 석탄, 캐시미어 등 1차산품을 수출하고 석유, 기계설비, 전자부품,
 자동차 등 에너지와 자본재를 수입
 - 주요 수출품인 동과 금의 수출 비중이 2008년 각각 32.9%, 3.8% 차지

□ 산업기반 부족과 경제구조 취약으로 성장 한계

- 광업부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산업구조로 성장에 한계가 있어 농업 부문
 활성화, 제조업 기반 확대, 서비스산업 육성 등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산업 다변화를 추진하나, 성과가 부진
 - 특히, 제조업은 주로 식품, 광물, 캐시미어 등의 단순 가공업으로 2008년
 GDP의 4%에 불과
- 외국인 투자는 자원개발에 집중되고 있어 광업부문 의존도만 갈수록 심화
 되고 있는 실정

- 광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으로 GDP 대비 광업 비중이 1995년 12.0%에서 2007년 27.5%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광업부문이 2005년부터 GDP의 최대 비중 차지

□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높은 교역 의존도

- 수출이 중국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중국의 정책이나 경기 변화가 수출의 주요 변수로 작용(2008년 몽골의 대 중국 수출 비중은 64.7%)
 - 동의 거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수출
- 석유 등 연료와 식품은 주로 러시아에 의존(2008년 몽골의 대 러시아 수입 비중은 34.4%)
 - 몽골은 밀의 73.3%, 휘발유의 92.2%, 디젤연료의 96.5%를 러시아로부터 수입(2008년)

□ 도로망 등 인프라 구축 미비로 물자의 효율적 이동에 제약

- 광대한 영토(한반도의 7배)에도 불구하고 물류의 대부분을 횡단 철도(Ulaanbaatar Railway), 동서 횡단 도로에 의존하고 있는 등 열악한 인프라로 물자 운송에 제약

□ 외부 원조에 의존적인 경제

- IMF, ADB 등 국제기구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원조자금에 의한 개혁 프로그램 시행, 대외원조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주로 외부원조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음.
 - 2001~07년 중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대 몽골 ODA 지원규모는 연평균 2.2억 달러 수준
 - 주요 원조국은 일본, 독일, 미국으로 동 기간 지원 비중은 각각 28.5%, 12.3%, 7.6%임

- 미국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은 2007년 10월 285백만 달러의 원조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는 2009년 1월 울란바타르 고가도로 설계 프로젝트 지원 자금 등 22백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

나. 성장 잠재력

□ 비교적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로 경제성장 동력 확보

- 동, 석탄, 금, 몰리브덴 등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로 자원 개발을 경제성장 동력으로 활용 가능
 - 특히, 자원 개발을 위한 외국인 투자 유입이 전체 외국인투자의 52.5% 차지
 - 중국, 캐나다, 호주 등지로부터 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FDI 유입액이 2005년부터 크게 증가
 - 몽골의 FDI 유입액: 92.9백만 달러('04) → 185.3백만 달러('05) → 191.1백만 달러('06) → 360.0백만 달러('07) → 585.5백만 달러('08)

다. 정책성과

□ 1조 5천억 투그릭 규모의 경기부양 실시

- 2009년 3월 몽골 국회는 ① 환율 및 은행산업 안정, ② 인프라 사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③ 수출 촉진, ④ 농업 지원 등을 위해 1조 5천억 투그릭 (10.4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승인

□ 중앙은행은 금리인하 조치로 국내 경기 활성화와 은행 안정화 도모

- 몽골 중앙은행(Bank of Mongolia; BOM)은 2009년 3월 환율안정을 위해 정책금리를 대폭 인상하였으나, 최근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환율이 안정되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 차례의 금리인하 조치 단행

- 2009년 중앙은행 정책금리 추이: 9.75% → 14%(3월) → 12.75%(5월) → 11.5%(6월) → 10.0%(9월)

□ 아이반호사와의 오유틀고이 광산 투자계약 체결로 경제 활성화 기대

- 몽골 정부의 전략광산에 대한 지분확대 추진으로 수 년간 지연되어 온 캐나다 아이반호사(Ivanhoe Mines Ltd.)의 오유틀고이 광산 투자 협상이 원자재 가격 급락 및 경기 침체로 2009년 10월 몽골 국회의 최종 승인
 - 동 투자계약 체결을 위한 관련 법률 개편이 2009년 8월에 확정. 개편 법률은 '초과이윤세법', '법인세법', '도로법', '수자원 이용에 관한 법'으로 동 내용에는 ① 구리·금에 대한 68% 초과이윤세 2011년부터 폐지, ②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 확대(2년 → 8년), ③ 도로, 수도 공급 설비의 민간 건설과 운영 허용이 포함
 - 오유틀고이 광산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50억 달러로 10억 달러는 이미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40억 달러는 향후 5년 내 투자될 예정
- 오유틀고이 광산 투자 계약 체결로 몽골 광물 자원 개발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더욱 활기를 띠 전망

□ 무수익여신 증가 등 금융부문 리스크 증대

- 최근 경기 침체와 취약한 금융 감독 기능으로 인한 무수익여신(Non Performing Loan) 증가로 중앙은행 관리를 받는 은행 발생
 - 몽골의 주요 은행인 Anod 은행이 2008년 12월 중앙은행 관리 하에 들어간 데 이어, 2009년 11월에는 부도 위기에 처한 Zoos 은행을 국유화
- * 대출잔액 중 무수익여신 비율(3개월 미만 연체 대출금 포함)
 - : 5.3%('08.11) → 18.1%('09. 5) → 21.5%('09. 8)
- 이에 따라, 몽골 정부의 재정 부담도 증가

- 몽골 국회는 은행산업 안정을 위해 2008년 11월 예금보장 법안(Law on Blanket Deposit Guarantee)을 승인하고, 12월에는 4,551억 투그릭(3.1억 달러)의 구제금융 지원을 승인
- 향후 부실 은행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몽골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
경 상 수 지	-5	109	265	-722	-291
경 상 수 지 / GDP	1.3	7.0	6.7	-13.9	-6.9
상 품 수 지	-29	189	-52	-613	-183
수 출	1,069	1,545	1,951	2,535	1,830
수 입	1,097	1,357	2,003	3,147	2,013
외 환 보 유 액	430	926	1,195	657	822
총 외 채 잔 액	1,302	1,394	1,596	1,601	1,860
총 외 채 잔액 / GDP	59.7	44.3	38.9	33.1	46.5
D . S . R .	7.6	5.4	4.3	3.5	4.3

자료: IFS, GDF, IMF, World Bank

□ 수입의 급격한 감소로 상품수지 적자폭 축소

- 2008년 동, 금, 캐시미어 등 주요 수출품의 가격 상승에 따라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석유, 식품 등 주요 수입품의 가격 상승, 광업 투자 확대에 따른 설비 수입 증가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하여 상품수지 적자가 6.1억 달러까지 확대
- 2009년에는 낮은 광물 가격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나, 경기 침체로 인한 금속, 기계류 등 자본재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하면서 상품수지 적자폭이 1.8억 달러로 축소

□ 상품수지 적자 축소로 경상수지 적자 규모 축소

-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관광수입 감소, 해외 근로자 송금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적자 축소로 경상수지 적자 규모 축소

□ 원조자금 유입 등으로 외환보유고 증가

- IMF 등의 원조자금 유입으로 2009년 외환보유고가 전년 대비 1.7억 달러 증가한 8.2억 달러 수준
 -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구리 등 광물 가격 급락으로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악화. 이에 따른 투그릭화 환율 급등 및 일부 은행에서의 투그릭화 예금인출 사태 발생 등 외화유동성 위협에 직면하자 몽골은 2009년 1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
- 투그릭화 환율은 2008년말 Tg1,165.74/U\$에서 2009년 3월 Tg1,590.70/U\$까지 치솟았으나, 금리 인상, 원조자금 유입 등으로 점차 안정되어 2009년 11월 Tg1,455.55/U\$수준을 유지

Ⅲ. 정치·사회 동향

1. 정치 안정

□ 몽골 최초 야당 대통령 당선과 평화적 정권 교체 실시

- 2009년 5월 대선에서 최초로 야당인 민주당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Ts. Elbegdorj)가 대통령에 당선. 산자 바야르(S. Bayar) 총리와 앙흐바야르 대통령은 공식발표가 있기 전에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패배를 인정함으로써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달성
 - 선거결과는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실망과 변화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

□ 산자 바야르 총리의 사임으로 국정운영에 차질 발생 가능

- 다수당인 몽골인민혁명당과 민주당 간 연립내각이 구성되었으나 갑작스런 총리 사임으로 국정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 존재
 - 2009년 10월 몽골인민혁명당(MPRP) 산자 바야르 총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총리직을 사임하자, 몽골 국회는 10월 29일 전 외무부 장관인 몽골인민혁명당의 수흐바타르 바트볼드(Sukhbaatar Batbold) 총리를 후임으로 임명

2. 사회 안정

□ 인종·종교간 갈등 없으나 소득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갈등 존재

- 종교나 인종 간 갈등 없이 사회안정을 이루고 있으나, 기득권의 부정부패, 최근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계층간 소득 불균형 심화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존재

- 특히, 광업 위주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국민 증가

3. 소요·사태

□ 물가 상승, 실업률 증가 등으로 소요사태 재발 가능성 상존

- 몽골정부의 빈곤퇴치 정책 실패로 고조된 국민 불만이 2006년 4월 국민적 시위로 표출되는 등 정부의 국정 능력에 대한 불신 잠재
- 2008년 6월 총선으로 인한 폭력사태도 근본적 원인은 빈부격차 확대 등에 따른 집권당에 대한 불만
- 최근 고유가로 인한 공공요금, 주택가격 등의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경기 침체에 따른 실업률 증가 등과 맞물릴 경우 시위 등 소요사태 재발 가능

4. 국제관계

□ 실용주의 외교노선으로 인접국인 중국, 러시아 외에도 일본, 미국 등과도 우호적 관계 유지

- 냉전 종식 이후 이념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정책으로 인접국이자 주요 교역국인 러시아,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등과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몽골은 일본, 미국 등 주요 원조국들을 중국, 러시아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활용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외채규모는 큰 편이나 거의 대부분이 장기 양허성 차관으로 관리 가능

- 지속적인 외채 증가로 2004년에는 GDP대비 총외채잔액이 91%에 달했으나, 이후 경제성장으로 GDP대비 총외채잔액이 계속 감소하였음. 2008년 말 몽골의 총외채잔액은 16억 달러로 GDP의 33.8%에 해당되어 외채규모는 여전히 큰 편
- 그러나, 총외채 거의 대부분이 장기 양허성차관으로 구성되어 외채관리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채무 리스케줄링 경험은 없음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신용도평가

<표 3> 주요 기관별 신용도평가

기관명	종전 평가등급	최근 평가등급
OECD	6('08. 4)	6('09. 4)
Moody's	B1('09. 2) ^주	B1('09. 6)
S&P	BB-/Negative('08.12)	BB-/Stable('09.11)
Fitch	B/Negative('09. 1)	B/Stable('09.10)
Euromoney	139/186('09. 3)	140/186('09. 9)
I.I.	90/175('09. 3)	96/178('09. 9)

주: 등급 하향 검토(Possible Downgrade)

□ Fitch, S&P 몽골 국가신용등급 전망 상향 조정

- 최근 신용등급 변동은 없으나, S&P, Fitch는 몽골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Negative)'에서 '안정적(Stable)'으로 상향 조정

- Fitch는 2009년 4월 IMF 차관 지원 합의 이후 물가상승률 둔화, 환율 안정, 외환보유고 확충 등 안정화되고 있는 국내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2009년 10월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
- S&P는 오유틀고이 광산 투자 계약 체결 등 광산 개발로 인한 경제성장 기대, 국제기구 및 원조국들과의 협조적인 관계 등을 감안하여 2009년 11월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
- Moody's도 2008년 말에 등급 하향 검토를 하였으나, 올해 6월에 종전 등급을 유지하기로 함

3. 우리나라와의 관계

<표 4> 우리나라와의 관계

외교 관계 수립	1990년 3월 26일(북한과의 수교 1948년 10월 15일)			
주요 협정 체결	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 문화협력협정(이상 '91), 이종과세방지협정, 세관협력협정(이상 '93), 관광협력협정('04)			
교역 현황¹⁾	2006	2007	2008	주요 품목
수출(백만 달러)	110	170	238	자동차, 기호식품, 석유제품
수입(백만 달러)	6	21	31	금속광물, 동제품, 비금속광물
투자 현황²⁾	272건, 167,394천 달러(2009년 9월말 기준, 누계)			

자료: 1.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2. 한국수출입은행

□ 에너지·광물자원·농업 등 분야 경제협력 추진

- 2006년 5월 한·몽골 정부간 신재생 에너지분야 협력 MOU 체결, 9월 도르노고비(Dornogovi) 유연탄광 관련 MOU 체결, 2008년 4월 몽골 축산품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합의, 5월 동몽골 할흐골 지역 농업개발 마스터 플랜 수립사업 합의 등 양국 정부와 유관기관 간 에너지·광물자원·농업 개발 분야 경제협력 추진
- 또한, 2009년 4월에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ADB가 주관하는 몽골 전자 무역시스템 구축사업을 수주하여 추진 중에 있음

V. 종합의견

- 경제적으로 2008년 하반기부터 세계경기침체로 인한 구리 등 광물 가격 하락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외환보유고가 급감하였으나, 2009년 4월 IMF의 대기성차관 등 원조자금 지원과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통화정책 등으로 최근 환율이 안정화되고 경기도 회복되고 있음
- 특히,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몽골정부와 아이반호사 간 오유톨고이 구리·금 광산 투자계약 협상이 2009년 10월 국회 승인으로 마무리되면서 외국인 투자 활성화에 따른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
- 정치적으로는 산자 바야르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국정운영의 차질 가능성이 상존하는 한편, 소득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갈등과 극빈층의 시위 등 사회불안 우려도 여전
- 전체적으로 볼 때, 원조자금 확보와 세계경기 회복 조짐 등으로 경제성장이 기대되고 갑작스런 총리 교체가 국정운영의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조사역 채화정(☎ 02-3779-6660)

E-mail: hwajeong@koreaexim.go.kr